

지역 매아리

고창경찰서, 수능 전·후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키로

고창경찰서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전후 사전 예방·홍보활동과 더불어 가시적 순찰 및 유해환경 집중 점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창경찰청은 15일까지 업무·종업원 대상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은 가시적 순찰 및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창교육청(교사), 패트푸드, 자율방범대 등과 청소년 탈선·비행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순찰을 전개하는 한편, 술·담배 판매행위는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유흥비 미련을 위한 금품갈취, 절도 등 범죄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대한한돈협회 부안군지부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 펼쳐

사)대한한돈협회 부안군지부(지부장 최진광)가 14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한돈 200kg(200만원 상당)을 부안군에 전달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부안군지부 나눔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3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1만 200kg, 1억 2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했으며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친 환경 돼지고기를 기탁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노선 확대

고창군은 산간·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7개면 13개 마을 음식물쓰레기 수거 노선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필요로 하는 산간·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주민 불편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 수거용기에 종량제첩(60x1120x1)을 부착하여 마을회관 앞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용기 내 음식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산간·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갯벌생태여행 시범사업 진행

겨울갯벌체험·운곡습지 갯벌 연결 새로운 생태여행으로 기획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갯벌과 선운산도립공원 운곡습지 등을 연계하는 '고창갯벌생태여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탐사르고창갯벌센터, 고창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생태여행은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고창민의 생태여행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도로 기획됐으며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21명이 참여해 고창갯벌생태여행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전체의 자연생태환경 중에서도 그 가치가 높은 고창갯벌과 탐사르습지로 등록돼 관리되는 운곡습지를 비롯해, 세계문화유산 고안돌유적, 선운산도립공원 등 지역명소들을 아우르는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갯벌 비수기인 겨울철 갯벌여행 상품개발을 위해 어민들과 함께하는 지주식 김양식 체험을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트



이번 생태여행은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고창민의 생태여행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도로 기획됐으며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21명이 참여해 고창갯벌생태여행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랙터를 타고 지주식 김양식장을 둘러보며 고창의 갯벌 지주식 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 어촌차산업 시범 마을인 두어미를 주민들이 만들어준 지주식 김을 활용한 떡국과 김전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내며 갯벌생태여행과 주민 소득의 연결이 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탐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보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태여행 운영, 주민 사업진행 등을 역할을 통해 단순한 갯벌의 이용을 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갯벌 보전, 현명한 이용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비전을 확인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열린혁신 추진단' 현판식 가져

시민이 정책의 주인이자 수혜자 될 수 있는 열린혁신 추진 기대

정읍시는 14일 '열린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김용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읍시 열린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시는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간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열린혁신' 의지에 발맞춰 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혁신추진단은 단장을 정점으로 스마트행정과 혁신문화행정복지, 열린안전도시, 미래농생명전략, 직속·사업, 읍면동 모두 6개 팀으로 구성했다.

각 팀장은 순서대로 기획예산과장장 문화예술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신태인읍장이 맡는다.

시에 따르면 시청 32개과, 23개 읍면동 전직원이 혁신 추진단 팀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새 정부의 역점사업인 '열린혁신' 추진 기반을 다



정읍시는 14일 '열린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고, 관련한 추진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관련해 김생기 시장은 "시청 내 과소와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전 구성원이 한바름으로 협심하는 정읍시 열린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주인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열린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혁신추진단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혁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물론 열린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주산면 미라클랩 청결환경단 클린 주산 만들기 환경정비활동 펼쳐

부안군 주산면 미라클랩(미관조성은 나의 손으로, 클린주산) 청결환경단은 클린 부안 이미지 제고 및 자긍의 북 실현을 목표로 지난 9월 구성됐으며 주산면 이장 협의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부녀연합회, 공무원 등 23명의 관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군민 디자인단이다.



청결환경단은 매주 1회씩 어르신 이 많이 거주해 자발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수 없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하려고 도로변 가로수 정비와 주변 고사목 제거 및 쓰레기 상습무단 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지난 7일 미라클랩 청결환경단은 토론회를 개최해 국도 지방도 가시간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잡쓰레기 수거 마을 내 폐농기계 등 대형 폐기물 수거 등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3일에는 청결환경단과 마을 주민이 협력해 주산면 구담마을 골짜기 및 진입로에 방치된 폐농기계, 폐닐, 잡쓰레기 등을 트럭 4대를 동원해 수거하고 도로변의

정읍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펼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산불 없는 지역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최근 산하 공무원 내장산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정읍시립조합 직원, 시 산불진화대원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자들은 시내 주요 지역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지역 내 주요 등산로에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산불진화차량 5대와 읍면 관용 차량 15대에 산불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내 8km 구간을 돌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 등을 일깨웠다.

더불어 내장산 일주문 앞을 비롯한 주요 등산로 입구 3개소에서 계도 활동에 나서 산림 내 취사와 흡연 금지, 산림 연접지 화기접근 금지 등을 알리고 등산객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영농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림 인근 도로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조심 계도,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자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행정력 집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8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분주한 발품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도 국가예산팀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추진했다.

아울러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10일과 14일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장 정운천 의원과 안호영 의원을 연이어 면담하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건의 현안사업(문

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국도 23호선 건설등에 대한 국회단체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난 10일에는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우수 농축수산 부문 환경개선 시제 조사를 위한 일본 출장을 마치고마자 인천공예전시회를 면담하는 한편, 14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군 현안사업의 국회단체 반영을 요청하는 등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Champong.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gift se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